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621만원...1년새 200만원 급증

3차례 추경으로 나랏빚 1년새 111조4000억원 증가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6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랏빚이 1년 만에 110조원 늘어나면서 국민이 짊어질 국가채무도 1인당 200만원씩 증가했다. 7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차 추경안 기준 예상 국가채무(D1·중앙·지방정부)는 84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기준 국가채무 728조8000억원보다 111조4000억원(15.3%) 늘었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성된다. 전체 국가채무의 절반을 차지하는 적자성 채무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으로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전체 국가채무를 2020년 2월말 주민등록인구 기준 5184만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62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인당 국가채무 1406만원보다 1년새 국민부담이 215만원씩 증가한 것이다. **유유나 기자**

1년새 늘어난 국가채무 111조4000억원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나랏빚은 3123억원씩 증가할 전망이다. 초단위로 계산하면 1초에 361만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채무 증가속도를 우려하면서 여전히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방송에 출연해 "(3차 추경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OECD 평균인 110%보다 양호하고 재정여력이 있다는 것이 통칭된 평가"며 "다만 재정증가 속도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정부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시장 성수기'...전국 곳곳 2만여 가구 공급

서울·부산·광주 등 33개 단지 분양 시작
전분주택 15곳 오픈

8월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강화와 7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둘째주에는 전국 33개 단지에서 총 1만9393가구(일반분양 1만202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단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르엘신반포파크에비뉴', 인천 서구 백석동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 광주 북구 문흥동 '더샵광주포레스트', 전남 여수시 웅천동 '여수웅천캐슬스타(오피스텔)' 등이 청약 열풍을 경험한다.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6/8	서울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4단지(국민임대) (-6/17)
				고덕강일6단지(국민임대) (-6/17)
				고덕강일7단지(국민임대) (-6/17)
				고덕강일9단지(국민임대) (-6/17)
				르엘신반포파크에비뉴 1순위(당해지역) 위례3BL(국민임대) (-6/17)
				로머스파크에리더지 1순위
				여수웅천캐슬스타
				연동백강스위트홈 1 1순위
				복정라하우스리
				복정라하우스리 1순위(기타지역)
6/9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동두천송내51(공공분양) 1순위
				평택소사밸리(국민임대) (-6/17)
				화성시청역리젠시티빌라트 1순위
				부평SKVIEW해모로 1순위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1단지) 1순위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2단지) 1순위
				이안센트럴포레스트(1단지) 1순위
				이안센트럴포레스트(2단지) 1순위
				신산반도유보라아파트 1순위
				연동백강스위트홈 1 2순위
6/10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세운푸르지오에리더지 (-6/11)
				동두천송내S1(공공분양) 2순위
				포천모아엘가리더스파크 1순위
				화성시청역리젠시티빌라트(C2) 2순위
				부평SKVIEW해모로 2순위
				부평삼산신원아파트도시 1순위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1단지) 2순위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2단지) 2순위
				쌍용더플래티넘거제아시아드 1순위
				쌍용더플래티넘거제아시아드 2순위
6/11	경기	고양시	당동	군포당동그랑시티2차 1순위
				양주옥정안신더유 1순위
				일스타이트의정부북역 1순위
				일스타이트의정부북역 2순위
				포천모아엘가리더스파크 2순위
				부평삼산신원아파트도시 2순위
				쌍용더플래티넘거제아시아드 2순위
				더샵광주포레스트 1순위
				광양더블하이(L2) 1순위
				래미안엘리타
6/12	경기	여주시	교동	여수역교동어울림베르데스
				일스타이트레이크송도3차
				백안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
				실야명곡역우방아이유엘
				백영로하늘채드림파크
				역신나하트비티
				알뜰신도시안국아델리움더퍼스트
				청주동남파라곤
				군포당동그랑시티2차 2순위
				양주옥정안신더유 2순위
일스타이트의정부북역 2순위				
6/12	부산	연제구	거제동	쌍용더플래티넘거제아시아드 1순위
				e편한채상무동산 1순위
				더샵광주포레스트 2순위
				광양더블하이 2순위

(주1) * = 오피스텔, * =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체크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DK도시개발·DK아시아는 인천 서구 백석동에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를 공급할 예정이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으며 지하 2층~지상 40층, 전용면적 59~241㎡, 총 4805가구 대단지로 구성된다. 단지 주변으로 백석중학교, 백석고등학교 등이 가깝다. 종로엔스쿨, 풀무원푸드앤컬처와 협약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단지 내 교육 특화프로그램과 식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글로벌 컨시어지 기업인 '돛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입주민들에게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재건축비사업 조합은 서울 잠원동 '르엘 신반포 파크에비뉴'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5층, 3개 동, 총 330가구 규모로 일반에게는 98가구를 분양한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신사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등 고속버스터미널 상권을 이용 할 수 있으며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있다. 또 신동초등학교와 신동중학교가 단지 인근에 위치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한강 주변 잠원 한강공원, 명주근린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포스코건설은 광주 북구 문흥동에 '더샵광주포레스트'를 분양한다. 지상 최고 39층, 7개 동, 아파트 907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84실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아파트 △84㎡ 679가구 △101㎡ 225가구 △121㎡ 17가구 △131㎡ 2가구 △오피스텔 59㎡ 84실이다. 단지는 힐플러스와 농수산물시장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무등도서관 등의 생활 인프라가 인접해 있으며 광주병원·우암병원도 가깝다. 동광주·문흥·각화IC를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견본주택(모빌하우스)은 15개 사업장에서 오픈을 준비 중이다. 서울 종로구 구

서울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신사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등 고속버스터미널 상권을 이용 할 수 있으며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있다. 또 신동초등학교와 신동중학교가 단지 인근에 위치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한강 주변 잠원 한강공원, 명주근린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포스코건설은 광주 북구 문흥동에 '더샵광주포레스트'를 분양한다. 지상 최고 39층, 7개 동, 아파트 907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84실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아파트 △84㎡ 679가구 △101㎡ 225가구 △121㎡ 17가구 △131㎡ 2가구 △오피스텔 59㎡ 84실이다. 단지는 힐플러스와 농수산물시장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무등도서관 등의 생활 인프라가 인접해 있으며 광주병원·우암병원도 가깝다. 동광주·문흥·각화IC를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견본주택(모빌하우스)은 15개 사업장에서 오픈을 준비 중이다. 서울 종로구 구

코로나 이후 '재정 의존 경제' 심화

정부지원금 뺀 '시장소득' 5분위배율 12.1배 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경제 충격에 따라 지난 1분기 가구 소득격차가 심화됐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통계청 발표에 포함되지 않던 1인가구와 농어가를 포함하면 소득격차는 더욱 극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인 '시장소득' 기준 분배지표는 통계청 지표보다 5배 가까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경제활동이 마비된 결과인데, 저

소득층이 스스로 일하기보다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재정 의존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1~3월(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분배율)은 5.41배로, 1년 전(5.18배)보다 0.23포인트 상승해 전년보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 분배율은 소득 최상위 20% 가구(소득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을 최하위 20% 가구(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수치

로,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이 더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분배율은 더욱 심각한 상황을 보여준다. '균등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1인가구 이상, 농어가 포함' 5분위 분배율은 △2019년 1분기 10.98배 △2020년 12.13배로 1년만에 1.15배나 높아졌다. 수치 자체도 통계청의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 분배율의 2배 가까이 높다. 정부의 시장개입정책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더 어려워졌고, 이어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대내외적 요인이 빚은 경기 악화에 따라 시장소득 격차가 심화됐고, 이 때문에 정부 재정이 투입된 면도 있다. **뉴스1**

막힌 하늘길 뚫어 수출 살려라

산업부, 아세안 10개국과 '기업인 신속통로' 가이드라인 협의
중국과 합의 이어 수출활로 모색... '코로나 상황 예의주시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막혀 있던 하늘길을 뚫으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수출도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 섞인 기대가 나오고 있다.

산업부, 아세안 10개국과 '기업인 신속통로' 가이드라인 협의 중국과 합의 이어 수출활로 모색... '코로나 상황 예의주시해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특별 아세안+3 경제장관 회담'에 참석해 아세안+3 경제장관 공동성명 채택에 합의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필수 기업인 이동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합의했다는 점이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 국면'이 시작되고 전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가 많아졌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무역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타격이 매우 크다. 지난 4월 24.3%의 수출 감소가 나타난 데 이어, 5월에도 23.7%가 감소하는 등 2개월 연속 20% 감소세가 나타났다.

산업부, 아세안 10개국과 '기업인 신속통로' 가이드라인 협의 중국과 합의 이어 수출활로 모색... '코로나 상황 예의주시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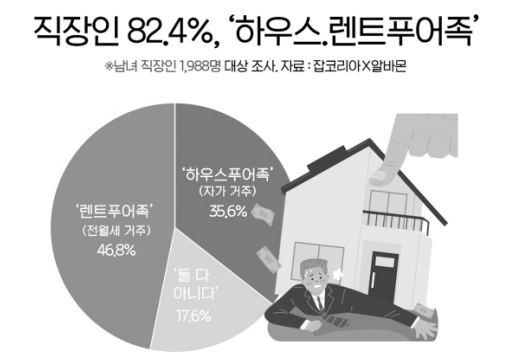
4월에는 99개월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5월에는 한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이 역시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수입 감소폭이 더 컸던 영향이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 3년간 유지해왔던 연간 무역 1조달러 달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줄곧 '필수적 기업인'의 국가간 이동 보장'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지난 4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

신종우 기자

직장인 80% "하우스·렌트푸어족"

매월 소득의 5분의 1 이상 주거비 지출... "대출 1억여원"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은 내집 장만과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상환 때문에 여유 없이 사는 '하우스·렌트푸어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들 직장인들은 매월 자신의 소득 5분의 1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 1988명을 대상으로 '하우스·렌트푸어'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10명 중 8명(82.4%)은 스스로를 '하우스·렌트푸어'라 답했다. 이는 2016년 조사(79.2%)당시에 비해 3.2%p 증가한 수준이다. 직장인들의 매월 소득 중 주택대출 상환과 월세 등의 '주거비' 지출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월 소득의 22%를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월세' 거주자의 경우 월 소득 중 주거비가 평균 27.6%로 가장 높았다. '전세' 거주자는 월 소득 중 평균 14.0%, '자가' 거주자의 경우 평균 24.3%를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직장인들은 매월 나가는 주거비에 대해 부담스러워 했다. 조사결과 '부담되는 편이다'가 47.7%, '매우 부담스럽다'도 32.8%로 10명 중 8명의 직장인들이 매



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주거비로 인해 힘겨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마련할 때 매매자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위해 대출을 받았는지' 조사한 결과 65.0%가 대출을 받았다'고 답했다. 미혼직장인 중에는 74.9%가, 미혼직장인 중에도 46.0%가 대출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주택 마련 형태별로는 집을 구입한(매매) 직장인들 중 68.7%가, 전세 계약의 경우 57.5%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했다고 했다. 주택 계약 시 대출금 규모는 전체 응답자 평균 1억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세 계약의 경우 평균 7600만원, 매매는 평균 1억1500만원 정도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월세의 경우에는 한 달 평균 51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